

남원시 ‘600년 광한루’ 역사·이야기 소개

‘나의 광한루 만들기’ 주제로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 발굴
市, 기념행사·공연·체험·전시 등 대대적 기념사업 추진

남원시가 광한루 600주년을 맞아 역사·이야기 등을 소개하는 대대적인 기념사업을 갖는다.
30일 남원시에 따르면 지난 25일 이환주 시장을 주제로 실국이 참여한 보고회를 갖고 광한루 600주년을 기념해 올해를 ‘광한루 600주년 기념의 해’로 지정하고, 대대적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시는 광한루 600주년을 맞아 지역 관광의 재도와 발전을 만들고자 추진사업을 논의했다.
시는 올해 단순 관람 형태의 관광을 벗어난 ‘나의 광한루 만들기’라는 주제로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체험형 콘텐츠를 발굴하기로 했다.
각종 기념행사 및 공연과 체험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문화자원을 연계·활용, 대대적 홍보 등을 통해 광한루의 유구한 역사를 이용한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는 전략이

다.
시는 기념행사 2건과 공연 6건, 체험·전시 5건, 연계사업 3건 등 총 16건을 테마로 추진한다.
특히 남원시립 국악단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광한루의 완월정에서 관람객들에게 국악연주와 창 배우기 등 국악한마당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내실 있는 준비로 전통문화와 선현들의 발자취가 어려 있는 문화유산을 느끼면서도 현재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면서 “다시 찾는 광한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선중기에 건축된 목조누각인 광한루는 우리나라 4대 누각 중에서도 역사가 가장 긴 건축물로, ‘춘향전의 사랑과 신선의 정원’이라는 의미를 담은 남원시의 대표관광지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남원시가 광한루 600주년을 맞아 역사·이야기 등을 소개하는 대대적인 기념사업을 펼친다. 사랑과 신선의 누각 광한루. <남원시 제공>

정읍시, 올해 소외계층 주거개선 사업 6억4200만원 투입

538가구 시설안전 점검·보수
정읍시는 소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6억4200만원을 투입한다.
이번 예산은 소외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투입된다.
올해 주거안정을 위한 개선사업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538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세부사업은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농촌·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사업, 소외계층 주거시설 안전 점검과 보수 등이다.
집 고쳐주기 사업은 매년 국비(복권기금) 50%를 지원받아 추진하며 올해도 국비(복권기금)와 시비 모두 5억1600만원을 들여 129가구에 대상으로 펼쳐진다.
농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은 등록 장애인들의 보행 편의를 위해 진·출입로,

경사로, 화장실 등을 개선한다.
또 400세대 소외계층의 주거시설 안전 점검과 보수에 9200만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정읍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계층의 노후 불량주택을 점검하고 개·보수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순창군 친환경농업특구 지정 ‘첫발’

인증면적 1500ha로 확대…110억 투입 2022년까지 조성

순창군농업기술센터가 친환경농업 특구 지정을 위한 도약을 시작했다.
순창군은 금과면, 팔덕면, 유등면을 중심으로 1500ha에 달하는 친환경농업 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110여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2년까지 특구지정을 목표로 한다.
순창농업기술센터는 올해 친환경 인증면적을 1300ha에서 1500ha로 확대하고 버섯과 인삼 같은 친환경농업 품목 다양화에 나서고 있다.
이어 친환경 스마트팜 버섯재배사 5동을 지원하고 친환경 채소와 인삼 재배단지

도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말에는 친환경 벼 가공을 위한 첨단 도정시설 설치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20차례 진행한 유기농 벼와 스마트팜 재배 관련 교육에는 900여명이 참여해 농가의 친환경농업 관심을 방증하고 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친환경농업 품목을 다양화하고 농한기를 이용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품목을 적극 개발하는 등 관련 분야 확대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kwangju.co.kr

고창농촌개발대학
신입생 240명 모집

고창군은 농업발전을 견인할 ‘2019년도 고창농촌개발대학’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오는 2월 21일까지다.
모집과정은 농식품경영과(40명), 지역리더과(40명), 식초산업과(40명), 북분자과(40명), 특별과정으로 수박멜론과(30명), 딸기과(25명), 인삼과(25명) 등 7개 과정 총 240명이다.
우수교육생에게는 오는 2020년 창업활성화 지원자금이 지원된다.
대상은 지역 거주자로 전문기술 습득을 희망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농업기술센터 과정별 담당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고창=박형진 기자 phj@

귀농·귀촌 생활 적응교육
익산시, 대상자 100명 모집

익산시는 귀농·귀촌세대의 영농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을 운영한다.
귀농·귀촌 교육은 신규농업인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교육과정과 심화교육과정으로 나눠 운영된다.
기본교육과정은 오는 2월, 심화교육과정은 오는 6월 대상자를 모집한다.
교육은 각 50명을 대상으로 펼쳐진다.
교육기간은 오는 3월 8일부터 10월 18일까지다.
교육은 해당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원예, 축산, 농업경영 및 법률, 농산물 가공, 농기계 이론 및 현장 실습, 관내·외 선도농가 벤치마킹 등 실질적인 농업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초부터 심화까지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특히 각 교육과정에 귀농·귀촌정착 우수사례 특강을 편성해 선배 귀농인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해 지역민과의 융화, 농업 품목결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한층 높일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기본과정 참여자 모집은 오는 2월 11일부터 22일까지 농촌지원과에서 진행된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목포해수청, 흑산도항 개발사업 착공

올 사업비 556억 투입 해경부두·어업지도선 부두 등 확보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장귀표)은 서남해권 해상에 대한 영해관리 능력을 강화하고 해양사고 신속 대응 및 소형어선 안전정박지 추가 확보를 위한 ‘흑산도 항 개발사업’을 착공한다고 30일 밝혔다.<조감도>
흑산도 항은 과거 60년대 어업 전진기지로 근해에서 조업 중이던 선박들의 태풍 피항지로 파시가 형성되어 전국에 알려졌다. 최근에는 서남해권 영해관리의 전략적 요충항만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1970년 제2종 항만으로 지정 이후 1993년 연안 항으로 개칭, 2013년 국가관리연안항 기본계획에 따라 2014년 9월 국가관리 연안 항으로 지정됐다. 그간 국비 1260억을 투입하여 방파제 570m, 접안시설 360m, 물 양장 770m 등을 확보했다.
목포해수청은 금회 총사업비 556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해경부두 및 어업지도



선 부두 360m를 확보해 국가영토수호를 위한 핵심거점 항만으로 개발한다.
이와 함께 항내 정온도 확보 및 소형어선의 안전정박을 위한 파제제 및 선착장 200m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장귀표 목포해수청장은 “서남해권 해상 전략적 요충항만인 흑산도 항에 해양 및 어업지도선 부두를 확충함으로써 해양 영토수호 및 영해관리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김준석 기자 kjs0533@



고흥군, 드론규제자유특구 추진단 구성

고흥군이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드론 규제자유특구 추진단을 구성하는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고흥군은 최근 군청 팔영산홀에서 전남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드론 규제자유특구 추진단 발대식을 열었다.<사진>
추진단은 김기홍 부군수를 단장으로 국립전파연구원과 순천대, 초당대, 전남테크노파크, 드론 업체 등 30여명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2월 말까지 드론 규제자유특구 사업계획서를 마련하고 4월 초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서를 내기로 했다.
드론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드론 관련 업체들이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로

운 환경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고흥군은 고흥만 간척지에 국비 178억원을 들여 드론특화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만1156㎡ 규모로 올해 6월 착공해 2021년 완공할 예정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드론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하겠다”며 “관련 기업과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고흥이 드론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

덕남동 임야, 여수 땅, 투자가치 좋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지분, 300평 매매
- 대학교수, 건설회사,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장/단기 투자대비 큰수익 가능
- 매매 - 7500만원 (일시불 조정가)

- 전남 여수시 봉강동343-1번지외 2필지, 대지 431평 (343-1-260평, 343-2-141평, 344-30평)
- 세일신경외과 바로 옆, 6차선 도로접, 전면65M
- 일반상업지역-90%, 준주거지역-10%,
- 대출-18억7500만원, 시세/감정가-약 35억
- 호텔/주상복합상가/메디컬센타등 모든업종 개발가능
- 매매 - 30억

문의. 010-6834-7400